

2016. 10. 20.(목)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기신문

2016년 10월 20일 (목)
02면 정보없음

김포~연천 평화누리길 '인기만점' 750만 발걸음 평화·자연 되새겼다

총연장 191km... 12개 구간
12월 17일 '종주투어 피날레'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북단 트레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을 찾은 총방문객 수가 올해 750만여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경기도 DMZ 접경 지역 4개 시·군인 김포, 고양, 파주, 연천을 잇는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이다.

지난 2010년 5월 첫 개장했다.

올해에는 4월 파주시 반구정길을 시작으로 5월 연천 임진적벽길, 9월 고양시 행주나루길, 10월 김포시 염하강철책길에서 행사가 차례로 열렸다.

도는 현재 '평화누리길의 세계적 명품화'를 목표로 평화누리길 코스 정비,

각종 편의시설 보강·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문화유적과 자연환경, 평화의 상징 등 평화누리길만이 가진 특성을 고려,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코스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DMZ와 평화누리길이 지니고 있는 평화와 통일, 생태적 가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17일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191km 종주자,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을 대상으로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피날레 행사'를 연다.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및 행사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화누리길 공식 홈페이지(<http://www.walkyourdmz.com/>)를 참고하면 된다.

/홍성민기자 hsm@

11.1 X 11.7 cm

기호일보

2016년 10월 20일 (목)
08면 수도권

'평화누리길' 750만 명이 걸었다... 명품 트레킹 코스로 인기

도 'DMZ 가치 살리자' 취지로 접경지역 4곳 이어 조성
게스트하우스 세워 지역 채유형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 지역 4개 시·군에 조성된 명품 트레킹 코스 '평화누리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평화누리길 12개 코스를 찾은 방문객이 지난달 말까지 7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

9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총연장 191km, 12개 구간으로 2010년 5월 공식 개장했다. 도는 최북단 트레킹 코스를 걸어 보며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적 의미와 생태적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매년 걷기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4월 파주시 반구정길을 시작으로 5월 연천 임진적벽길, 9월 고양시 행주나루길, 10월 김포시 염하강철책길에서 개최됐으며 총 4천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초창기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던 걷기행사가 이제는 회당 평균 1천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성장했다"며 "DMZ 일원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고,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 및 홍보활동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평화누리길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채유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김포 조강리 마을회관, 파주 자장리 한옥회관, 연천 옥계리 문화복지회관 등 총 3곳에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를 설치했다. 또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평화누리길 제11코스 임진적벽길 중 황골천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높이 14m, 길이 46m, 폭 3m 규모의 교량인 '수현재교'를 5월 개통했다.

백정민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이 어우러져 있는 평화누리길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누리

어 할 보물"이라며 "앞으로도 평화누리길이 세계적 명품 관광지 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2월 17일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종주자 120명,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을 대상으로 '평화누리길 종주투어 피날레 행사'를 개최한다.

한부근 기자 bgnin@khoibo.co.kr
신기호 기자 skh@khoibo.co.kr

29.4 X 8.0 cm